





## 해답 1. 기도하는 자입니다.

뮤지컬 『신 천로역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크리스찬이 ‘소망’이라는 이름의 친구와 함께 죽음의 강, 생명의 강을 건넵니다. 그 강 건너편에는 천성이 보입니다. 그 강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히 흐르고 물살도 잔잔하고 깊이도 가슴밀 정도라 낮게 흐르는 평온한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물에 크리스찬이 갑자기 빠져서 헤어 나오질 못합니다. 그가 강물에 빠진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며 구하는 자이며, 결국 좁은 길로 가는 자는 기도하는 자를 뜻합니다.

(살전 5:17~18)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뮤지컬팀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뮤지컬팀은 240일을 릴레이 금식을 하면서 첫 번째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 적용 질문 1

1) 내 삶에서 기도를 놓쳤을 때와 붙들었을 때를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구체적인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 해답 2.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원로 목사이신 김광신 목사님에게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을 때에 “말씀 가운데로 가는 거라꼬”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119편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좁은 길이 넓어 보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또한 김광신 목사님께서서는 일단 좁은 길로 들어가면 그 길이 너무나 넓어서 전혀 좁다는 생각을 못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선지자가 보는 환상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더니 그 물이 점점 크게 일어나서 나중에는 헤엄을 칠 수 없는 강물이 되어 흐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게 되고, 주의 기이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생각과 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러기에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간 그 길이 좁은 길인지 반문하게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실천할 때에 그 길은 절대로 좁은 길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 ❁ 적용 질문 2

- 1) 지금 내 삶에서 알고는 있지만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2) 처음에는 순종하기 너무 힘들고 ‘좁은 문’처럼 느껴졌던 말씀이, 막상 실천해 보니 나를 살리고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었던(카이로스의 시간)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 해답 3. 믿음을 드리는 자입니다.

(30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과거에 얼마나 잘 믿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현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은 나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뮤지컬 속에는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은 ‘수다쟁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지식을 말로 표현하면서 ‘믿음’이라는 배역과 열띤 논쟁을 합니다. ‘수다쟁이’는 전에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삶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 여인에게 ‘믿음’이 마태복음 7:21절을 말합니다.

(마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수다쟁이’처럼 지식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약 2:22).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인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히브리서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에게 믿음을 드리는 자는 좁은 길을 가는 자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 ❁ 적용 질문 3

- 1) 지금 나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에 기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의 나의 믿음의 상태를 솔직하게 나눠보고, 함께 어떻게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